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배포일자	2023년 3월 27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도 로 과	담 당 자	• 도로관리팀장 • 담당자	남지찬 ☎440-3786 박창규 ☎440-378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LED가로등 · 보안등 늘려 교통 · 보행 안전 강화**  
**- 노후 가로등 2,902개 · 보안등 2,518개 · 가로등 원격 점멸기 400대 교체 -**

인천시가 밝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관내 노후 가로등 2,902개, 보안등 2,518개를 교체하고 가로등 제어함의 원격점멸기 400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각각 3,243개와 3,122개의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교체 · 신설한바 있다.

이로써 2023년 1월 기준, 관내 가로등(128,326개 중 LED 98,816개) 및 보안등(60,289개 중 LED 47,629개)의 LED등기구의 설치율은 각각 77%와 79%를 기록했으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LED등기구로 교체 · 신설할 계획이다.

LED등기구는 친환경 고효율 절약형으로 연색성이 뛰어나, 더욱 밝고 쾌적한 야간 도로교통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고 아파트나 상점가에는 빛공해로 인한 불편도 줄일 수 있다.

특히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은 여성 대상 범죄 및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지구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야간 취약 지역을 발굴해 LED등기구로 교체·신설하였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밝은 야간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자료>

